

# 민주당 '무상복지' 세금정책 파열음

## 손학규·정세균 "부자감세 철회로 재원 마련" 정동영·천정배 "복지는 돈... 부유세 신설을"

무상복지 정책 재원 마련을 둘러싼 민주당 지도부 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당장 24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의에서는 증세 문제를 놓고 최고위원 간의 파열음이 빚어졌다.

정세균 대표의 회의에서 "재정지출 구조개혁과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며 "증세없는 복지"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부자감세 철회만으로도 재원을 상당부분 감당할 수 있다"면서 "복지정책 내용을 합의된 뒤에 비용 논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부유세 신설'을 주장한 정동영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당의 주인인 당원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그는 이어 "복지는 돈이고 성장기 받아라고 본다. 수세적으로 끌려가선 안된다"고 민주당이 솔직하고 과감하게 증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천정배 최고위원도 "보편적 복지를 증세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곤란한 얘기"라며 "모든 국민을 중산층 수준으로 복지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증세 없이 할 수 있겠는가"라고 가세했다. 조배숙 최고위원도 "공짜 치즈는

취닷 위에만 있다"는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거론, "세금 문제를 들어 나쁜 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의 물타기"라며 증세 주장에 동조했다.

이에 따라, 무상 복지 재원 마련 논쟁은 차기 대권 후보 티켓을 둘러싼 예비 후보군들의 전초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손 대표의 '증세없는 복지' 주장에 대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신념과 확신 부족으로 평가하는 한편 박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에 대해선 가난한 사람을 자신으로 구제하자는 것이라고 각각 평가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보편적 복지재원조달 기획단'은 이날 오후 2차 회의를 연데 이어 이번주 내에 정책비전과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 재원조달 기획단은 '3+1'(무상급식·의료·보육) 복지정책을 일자리, 주거 복지를 더한 '3+3' 복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획단에는 강봉균, 홍재형, 김진표, 최인기, 장병완, 조영택 의원 등 관료 출신과 김효석, 우계창 의원 등 교수 출신 전문가 그룹 등이 대거 참석함에 따라 무상 정책의 궤도 수정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무상 복지 정책 자체가 증세적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공세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증세에 대한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복지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시민토론폰마당 참가한 손학규

2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청에서 열린 민주당 용인 시민토론폰마당에 참가한 손학규 대표가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시민 참여당 깃발 들고 범야권 대권구도 바꿀까 이재정 대표 3·12 전대 불출마 선언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가 24일 '3·12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표로 나설 것이 확실시되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 전 장관이 참여당 대표로 나선다면 야권 내의 역학구도는 물론 차기 대권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단 유 전 장관의 등장으로 야권의 '도토리 키재기'식 후보경쟁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는 지지율 30% 선에서 선두를 달리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독주 체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 야권연대 논의 움직임도 급류를 탈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유시민 전 장관의 지지율 상승 여부다. 연합공천 등에서 참여당이 의미

있는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 전 장관의 지지율 상승이 현실화돼야 하기 때문이다.

10%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지금까지의 정세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참여당은 물론이고 예비주자인 유 전 장관의 미래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만약 확고한 유 전 장관이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제치고 '2위 후보'로 치고 나간다면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20~30대에 편중된 지지세를 확대하고 호남에서의 상대적 열세를 만회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이와 함께 유 전 장관의 정치권 전면 등장이 가시화됨에 따라 민주당의 유력 후보군인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 정세균 최고위원 등의 대선 후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구제역 창궐에 여론 역풍 피해가기

## ■ 한나라 개헌 의총 내달로 미룬 이유는

한나라당이 애초 25일로 예정됐던 개헌 관련 의원총회를 설 연휴 뒤인 다음달 8~10일로 연기했다.

안상수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배은희 대변인이 전했다.

배 대변인은 "현재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고, 또 많은 국회의원들이 해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의총을 미루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배 대변인은 또 "안상수 대표가 먼저 얘기를 꺼냈고 이에 최고위원들이 공감했다"며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 최고위원은 "한 참석자는 '당론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개헌 의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헌을

타박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전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당론을 정하려면 의원의 3분의 2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의원들의 해외방문, 귀향활동 등으로 그것이 어렵지 않느냐"며 "출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때(설 직후)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안 대표를 포함한 당·정·청 주요 인사들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한 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이번 의총 연기에 대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전날 회동엔 개헌 의총 소집을 주도한 안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는 물론, '개헌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까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 내용을 전하며 "대통령과 개헌 관련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만찬에서 일체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이 같은 관측을 부인했다.

그러나 최근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됐던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에 대한 우리 군의 구출작전 성공으로 모처럼 정부·여당의 정국 '호재'가 마련된 만큼, '설 연휴를 앞두고 자칫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개헌 문제는 당론만 꺼내지 말자'는 묵시적 합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지경기자 jpkpk@kwangju.co.kr

## 한나라 26일 광주서 민생 최고위원 회의

한나라당은 오는 26일 광주에서 민생 행보를 위한 호남지역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11시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시당 2층 회의실에서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한 대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광주·전남지역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를 갖는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호남지역 민생과 당면 현안 등을 청취한 뒤 지역상공인들의 관심사항을 파악하는 등 민생 행보를 가질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또 회의에서 앞서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최중경 청문보고서 무산 불구 MB, 27일 공식 임명할 듯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4일 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민주당이 최 내정자 임명 절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최 내정자에 대한 끈지 않은 여론을 우려, 단독 처리 강행 방침을 철회하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포기했다.

지경위 민주당 간사인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은 최 내정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 세금체납 등 부적격 사유가 너무 심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장관 지명 철회를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상 이날 자정까지 국회에서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한 차례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뒤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5일 최 내정자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26일까지 보내줄 것을 국회에 공식 요청하고, 기한 내에 보고서를 받지 못할 경우 오는 27일 최 내정자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와 함께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pkpk@

## 민주, '아덴만 구출' 평가 엇박자

### 孫 "이대통령 작전 능력 찬사" 대변인 "국정실패 무마 흉보"

민주당 지도부가 24일 우리 군의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의 구출 작전에 대한 평가를 놓고 엇박자를 보였다.

손학규 대표가 이례적 '찬사'를 보낸 데 반해 다른 지도부와 대변인들은 "국정 실패를 무마하기 위한 정권홍보가 심하다"고 쓴소리를 낸 것이다. 물론 손 대표는 작전 자체에, 다른 지도부는 작전 후 정부홍보에 초점을 맞췄지만 외형상 균열로 보기에 충분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작전능력이 구제역 섬멸작전에도 발휘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

다"고 하면서도 "대통령이 작전을 직접 지휘하셨다고 하는데, 훌륭한 작전능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정배 최고위원은 "정부가 호기라도 만난 듯 구제역 대란, 인 사실과 등을 무마하기 위한 정권홍보에 혈안이 돼 있다"고 꼬집었다.

박우선 최고위원도 "대통령 홍보를 위해 비밀리에 불어쳐야 할 작전 상황이 공개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가세했다.

이훈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자화자찬에 몰두할 게 아니라 구제역 잡는 일에 나서라"고 했고, 차영 대변인은 "신하의 공을 가로채는 것은 왕조시대에도 없던 일"이라고 비난했다. /박지경기자 jpkpk@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의데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치장 원비

주소: 영광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전화: 062-576-8600

**아이엘리시아**

프리미엄 뷔페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완비)

◆ 홀 : 연인, 친구, 가족(2인석, 4인석, 6인석)  
◆ 소모임(룸) : 직장회식, 계모임(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대모임(룸) :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